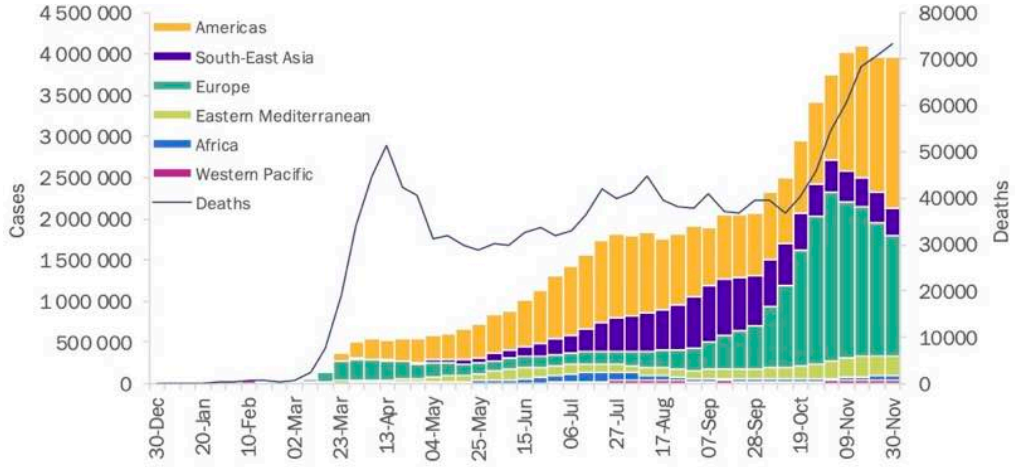
1

코로나19 세계적 확산 상황, **11월 중순 이후 다소 주춤세**

- 세계 코로나19 상황 관련, 총 확진자 수는 11월 중순 이후 다소 주춤거리는 양상을 보이나, 사망자 수는 10월 이후 계속 증가 추세에 있음
- 11일 기준 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6,889만 명을 넘어섰고, 사망자 수는 157만여 명에 달함 (출처 : 중앙대책본부)

[그림] 세계 코로나19 상황 추이(12월 11일 기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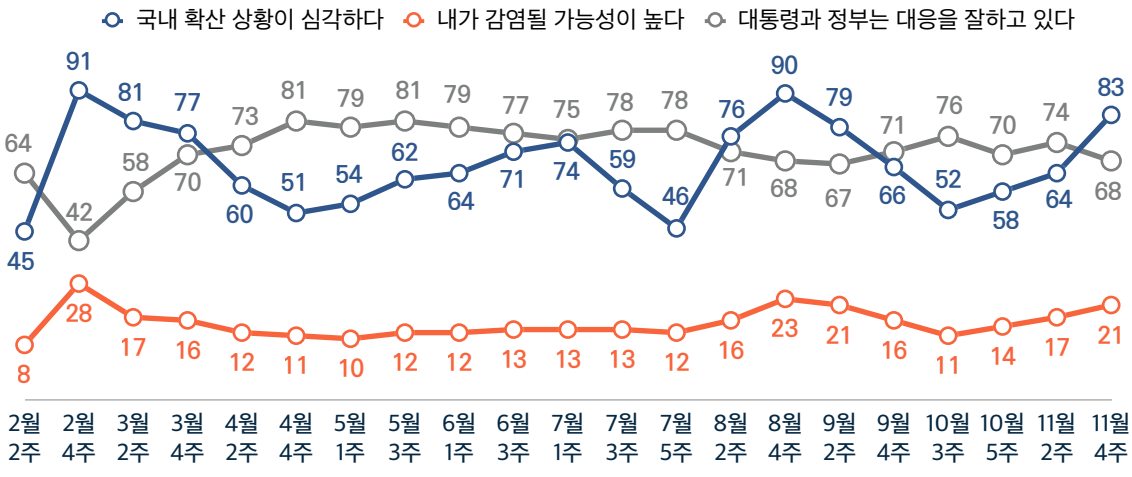


*자료 출처 : WHO, COVID-19 Weekly Epidemiological Update, 2020.12.08
** note) 막대그래프 : 확진자 수, 꺾은선그래프 : 사망자 수

● 한국 상황, 11월 말 기준 코로나19 '심각하다' 83%

- 국내 코로나19 관련 국민들의 '심각하다'는 인식은 11월 말 기준 83%까지 치솟았는데, 2차 유행기 정점인 8월 말의 90%에 거의 근접한 것으로 조사됐으며, 12월 초 이후 거의 매일 확진자 수가 600명이 넘어서는 현재 시점은 더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됨

[그림] 코로나19 상황 인식 추이 (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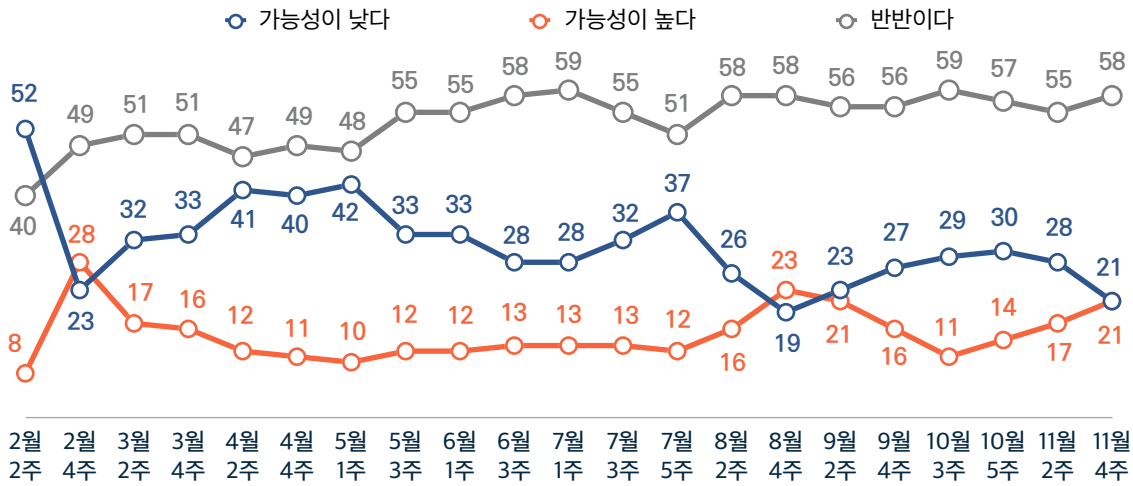


*자료 출처 :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, '코로나19 상황인식 및 정부대응평가(2020년 11월 4주차)'
(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,000명, 온라인조사, 2020.11.27.~30.)

● 본인 감염 가능성 '있다+반반' 79%

- 본인 감염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 '있다' 21%, '반반' 58%, '낮다' 21%로 전체 국민의 79%가 본인 감염성에 대해 가능성이 '어느 정도 있다'(있다+반반)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

[그림] 본인 감염성 인식 추이 (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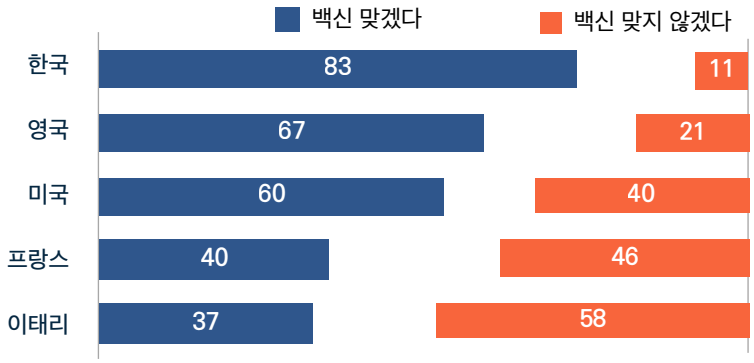
*자료 출처 :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, '코로나19 상황인식 및 정부대응평가(2020년 11월 4주차)'
(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,000명, 온라인조사, 2020.11.27.~30.)

2

한국인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향률(83%)
미국이나 유럽보다 훨씬 높음

- 영국에서 12월 8일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미국도 곧 시작되는 분위기 속에 한국인들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예방 접종 의향은 83%로 대부분의 국민이 백신이 나올 경우 접종하겠다고 응답함
- 반면,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 '한국'보다 접종 의향률이 낮은데, '미국' 60%, '영국' 67%, '프랑스' 40%, '이태리' 37%의 의향률을 보였으며, 미국보다 유럽이 상대적으로 의향률이 낮음

[그림] 주요 국가별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향률 (%)



*자료 출처 : 1) 한국 :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, '코로나19 상황인식 및 정부대응평가(2020년 11월 4주차)'
(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,000명, 온라인조사, 2020.11.27.~30.)
2) 미국 : 매일경제, "백긴 불신론 커지는 美, 10명 중 4명 안맞겠다" (https://www.mk.co.kr/news/world/view/2020/12/1257771/)
3) 유럽 - 조선일보, 2020.11.20. "프랑스인46% 이탈리아인58% "백신접종 당장 안한다" 불신 심각"
(https://www.chosun.com/international/europe/2020/11/20/I4PTQGQ57VBITLVWBT6ANAULLA/

● 한국인, 백신 맞겠다는 이유 1위, '가족 감염 막기 위해' 82%

- 한국인들이 백신을 맞겠다는 이유(1+2위)는 '가족이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' 82%, '본인 감염을 막기 위해' 78%, 코로나 '고위험군이라서' 15% 등으로 나타남
- 자신보다 가족을 더 먼저 생각하는 한국인들의 마음이 읽혀지는 대목임

[그림] 코로나19 예방 접종할 의향이 있는 이유(1+2순위)

*자료 출처 :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, '코로나19 상황인식 및 정부대응평가(2020년 11월 4주차)'
(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,000명, 온라인조사, 2020.11.27.~30.)